

영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상용

2008 새해설계 ⑤

농업 관련 유관단체 중심 농업발전위원회 구성해야

작은정원 사업 포천시 지원 영북면에 추진 농가소득 기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촌관광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대화산리와 소회산리에 곰치, 고사리, 더덕을 파종하고 헛개나무를 식재했으며 토종꿀 생산도 추진하고 있다.”



영북농업협동조합 이상용(사진) 조합장은 농촌이 보다 잘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작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사과재배면적 확대 조성고 곰치, 고사리 재배에 성공한 양구, 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영북면지역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화산리에 장담고기 전통협장을 설치하고 오는 3월부터 체험행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정자립을 위해 외부에 살고 있는 가족, 친지들을 찾아 예금, 대출, 공제, 카드사업 등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영북면지역 사과 재배에 적합해졌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과재배면적을 늘리고 도시민을 위한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에게 수도작을 하는 조합원이 가장 많은데 영북면에서는 ‘대안벼’ 생산면적을 2년째 계속 늘렸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시 더덕을 많이 재배하지만 국립 종자소에서는 일본품종이라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안벼를 권장하고 전량수

매에 나서고 있다. 영북면 수도작 전체면적 420ha중 25ha에서 대안벼를 경작하고 있다.

이 조합장은 “농민관련조직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포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민들을 위한 유관단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인 것은 포천에서 생산하는 쌀을 학교급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포천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영북농협에서는 연간 20kg 기준 1천100포를 학교급식용 쌀로 공급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4천300만원어치다. 영북지역의 경우 매년 6천여명 정도의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통해 고추, 오이, 토마토 등을 재배해 포천농협연합마케팅 시스템을 활용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이 가격이 상승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연합마케팅 사업의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합마케팅 사업은 관인, 영중, 영북, 일동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취급하지만 앞으로는 포천 전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한곳에 모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축적고개만 넘으면 1천200만명의 소비자가 포천

의 농산물을 기다리고 있다”며 “서로 뜻을 모아 포천시 전체농산물을 체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조합장은 “포천시가 추진했던 크라임 카르텔(작은 정원) 사업을 영북면에도 실시하여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있지 못한데 계속해서 건립하지 말고 이러한 예산을 활용해 작은 정원 사업을 추진하면 농가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수도작 조합원들이 가끔적이면 우리가 지정한 품목을 심어 생산하면 전량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 농협이라는 생각으로 어려워도 조합과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이 조합장은 “농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농업, 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모여 의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신문사에 바라는 사항은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고 포천시와 농업발전을 위해 좋은 기사를 많이 발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7

가산농협 하나로 화장품

체계화된 피부관리 상담



대표 서길석

아름다운 피부를 갖는 것은 모든 이들의 소망이다.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 매력 있는 촉촉한 피부는 선천적으로 타고 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한다.

아름다운 피부는 본인의 생활패턴이나 식생활 개선,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과 세안을 자주 해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워지려는 심리적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인지 예부터 화장품을 이용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왔다.

서 대표는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약 6년 동안 방문 판매용 화장품과 피부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다. 코리아나 본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부 마사지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인정받아 고객들에게 상담과 관리를 통해 자신의 체질에 맞는 화장품 권장과 능숙한 피부 마사지 기술로 고객 층을 넓혀왔다.

피부는 건강의 척도라고 한다. 한의사들은 얼굴 피부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서 대표는 화장품 판매보다는 고객의 피부상담과 피부관리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며 운영하고 있다. 고객과의 피부상담을 통해 본인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 권장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 많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친절한 서비스와 실속 있는 가격, 피부에 관한 한 전문가 못지 않은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서 대표는 가산농협 하나로마트 농협가드 로 종합화장품 코너 이용 시 구매 고객들에게 1%를 적립 해주고 있어 많은 이용을 당부하기도 한다.

서 대표는 “건강한 피부, 예쁜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안이 중요하다. 각질, 피지, 여드름 등으로 고민하는 고객들이 상상으로 많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 올바른 화장품 사용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 행복한 삶을

화장품은 오랜 기간을 거쳐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 해왔다. 피부개선, 피부 미용을 위한 각종 기능성 화장품까지 자신의 피부에 맞는 다양한 제품 사용으로 아름다움을 유지 해오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자리 매김 되어왔다.

가산농협 하나로 화장품(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399-2, 대표: 서길석)은 2005년 10월 가산농협 하나로마트 개점과 동시에 오픈 한 종합화장품 코너다.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모든 화장품(방문 판매용 제외) 취급과 피부관리 상담, 다양한 향수, 각종 란제리(제임스 딘, 트라이, 비아씨), 약세시리(머리핀, 헤어밴드)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 판매하고 있다.

있다. 청결한 피부는 피부의 노화를 방지해준다”고 청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서 대표는 “지금까지 변함 없이 저희 가게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들에게 감사 드리며, 자신의 피부에 맞는 올바른 화장품을 사용해 예뻐지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산농협 하나로 화장품은 고객이 구매한 제품이 이상이 발견되면 100% 환불이나 교환을 해 주고 있으며 신진, 구경, 추석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개점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문의 전화:031) 544-0101-4 HP: 010)3480-4078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가산농협 하나로 화장품은 2005년 10월 가산농협 하나로마트 개점과 동시에 오픈 한 종합화장품 코너다.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모든 화장품 취급과 피부관리 상담, 다양한 향수, 각종 란제리, 약세시리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 판매하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23

보험의 주연과 조연?

보험에는 주연인 주보험과 조연인 특약으로 구성된다. 주보험은 주인공인 만큼 주로 보장하는 속성이며 따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으며 병원의 실제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의료비 보장보험으로 민영의료보험이 있다. 또한 각종 질병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과 임을 중점적으로 보장해 주는 암보험이 있다. 사망보장과 함께 재테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저축기능의 변액보험과 노후의 인력 생활을 보장해 주는 연금보험이 있고, 운전 시 각종 법률적인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며, 각종 차를 운전하는데 필수적인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주보험에 사망보장과 더불어 입원 보장, 수술 보장 등의 위험보장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약이다. 보험계약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주 계약을 고른 후 추가로 더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주 계약 외에 특약을 잘 선택해서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약에는 주보험과 함께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부특약 또는

고정부가 특약이 있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특약이 있다.

선택특약으로는 주보험과 비슷하게 계속되는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사망보장을 더 추가로 하고 싶으면 정기보험 특약을 선택하면 된다. 또 재해사망, 질병사망 등이 있으며, 장애(상해)를 보장하는 특약으로는 재해 장애보장, 소득보장, 상해후유장애 특약이 있다.

2대 질병 진단, 주요 질병 입원, 수술, 암 진단 보장, 재해결핍,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등등... 이러한 특약들은 주보험을 가입하면서 주보험에 없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얼마 전, 어느 고객을 방문한 적이 있다. 어려운 살림에도 항상 웃음을 머금고 사는 마음이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이 있음에도 가정이 아닌 가장 역할을 하며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뼈든한 월급에도 진정어머니 용돈을 송금하는 어쩔 수 없다.

수년 전, 남편은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눈을 다쳤다. 지금 2급 국가 장애인으로 사람의 형상만 알아 볼 뿐 실명인 상태이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아내의 월급과 약간의 국가 지원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며가고 있다. 남편은 아무런 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꾸짖어 아내는 남편을 하던 아내 앞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억울하다며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 보험료는 계속 내고 있고 보험 혜택은 하나도 볼 수 없다는 게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하였다.

아니 무슨 보험을?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다치기 전에 적은 액수의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것이 있었다 한다. 암보장의 혜택이라도 볼까 싶어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다. 가입한 내용을 알고 싶어 증권을 한 번 보자고 했다. 장동위의 포안 면지를 꺼내내며 증권을 건네 받았다.

4만원의 보험료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이 1급부터 6급 2천만원 ~ 200만원, 보험료 납입면제까지 보장이 주어져 있었다. 이것이 웬 희망이란 말인가! (오래전의 보험이라 1급이 포함돼 있었다.) 마침 불발력이자 집에서 쉬고 있는 터에

내일 당장 그 보험 회사에 전단서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라 했다. 두 부부는 너무도 좋아했다. 끝내 밀정했지 눈이 안보여 장님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생긴 것이다. 안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다며, '이럴려고 그랬나보다'면서 매우 고마워했다. 다음날, 보험회사에 청구했다며 너무도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면서 한 톨 내겠다고 전화가 왔다. 그 고객 집에 방문 할 때가 호탕한 미소와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느끼며 오곤 했는데...

이 경우도 특약을 잘 활용한 사례이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암보장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재해는 청구조차도 하지 않은 보험이 특약에 재해(상해)가 해당이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미정 코인스포츠텔영소장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증여받은 후 3개월 전후 증여받은 재산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심해 씨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본인 명의의 등기를 이전한 다음 기준 시가(1억 3천만원)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 900만원도 납부하였다. 등기를 하고 2개월이 지난 후 한심해 씨는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대출받고 현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182일)이 지났을 무렵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284만원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증여세 신고도 정당한데 왜 세금을 더 냈는데 무슨 일인가 하여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한심해 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위 아파트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각각 1억 9천만원과 2억 1천만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 증여가액을 감평가액의 평균인 2억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한심해 씨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4) 또한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종류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위의 1), 2), 3) 경우의 가액 또한 200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도 증여일부터 매달 등기까지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의 건물은 국제형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의 평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의하여 평가를 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지므로 추후 적게 납부한 금액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심해 씨의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당해 증여세 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최종 결정인 이후에 대출을 받거나 증여재산 이외의 부동산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면 추가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거나 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2 ~ 4489)

산업안전사고 예방

달기구 전용 탑승설비 연결구조물 파단되어 추락

▶재해발생 개요 • 2006년0월0일17시30분경 00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공인 피재자 3명이 카고크레인(5톤) 달기구 전용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3층 바닥으로 하강하던 중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불 단부의 연결구조물이 파단되어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와 함께 14m아래 3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체임.

▶재해발생원인 가.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연결구조물 강도부족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의 부차 및 탈착을 쉽게 하기 위해 임의로 연결 구조부의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지 않도록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불 단부의 연결 Plate를 고정력 볼트 등으로 체결하여야 하나 미체결

나. 추락예방조치 철저히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에 탑승할 경우 탑승설비가 아닌 카고 크레인 불 단부에 별도로 안전대를 부착하거나 구멍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부착하여야 하나 미실시



▶중중재해 예방대책 가.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의 충분한 강도 확보 •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의 부차 및 탈착을 쉽게 하기 위해 임의로 연결 구조부의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지 않도록 탑승설비와 카고크레인 불 단부의 연결 Plate를 고정력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체결 나. 추락예방조치 철저히 달기구 전용탑승설비에 탑승할 경우 탑승설비가 아닌 카고 크레인 불 단부에 별도로 안전대를 부착하거나 구멍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부착하여야 하나 미실시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자동으로 인상되나?

매년 3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 결정 4월부터 상향조정된 연금지급

그렇다. 연금액을 최초로 결정할 때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된다. 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인상이된다.

연금 인상을 결정은 매년 3월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한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많아진다. 또한 연금액 산정에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은 본인의 기여보다 낮은 소득을 인정받아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소득자가 많은 연금액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독특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20년 후의 예상 연금액이 매월 60만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실제 연금을 받을 때는 전체 가입자 소득이 상승한 만큼 반영해 계산하게 된다. 결국 예상 연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91년부터 장여연금을 받고 있는 K씨의 경우에는 처음 매월22만6000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물가 상승률 연 3%를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77만3000원을 받게 되어 초기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